

군산부설초, 미래 역량 갖춘 시민 육성

군산 | 입력 2025.03.26 14:44

김기현 sisando7@naver.com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26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전북미래학교 2년 차로서 IB(국제 바칼로레아) 관심학교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설초는 학생들의 주도성과 사고력을 키우며, 미래 역량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설초는 전북미래학교의 비전인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민주적 자치공동체를 기반으로 기초·기본학력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국제 바칼로레아의 기본 철학과 비전을 교직원들과 공유하고, 개념 기반 탐구 수업 나눔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수업을 구현하고 있다.

김신철 교장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이 주도적인 학습자가 돼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을 꾸준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는 지난 1968년에 스위스 제네바를 기반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이곳에서는 3살부터 19살까지의 학생들에게 3가지(초등, 중등, 디플로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군산=김기현기자